

Production Note ^[제작노트] 1949-1972

야마다 마사아키는 화가 활동 전반기에 56권의 제작노트를 남겼습니다. 제작하고 있는 작품을 노트에도 꼼꼼히 적어서 작업의 진행 과정이나 문제점에 대해 그 옆에 적어 두었습니다. “회화와 계약”, “모든 색채는 그림을 바라본다” 등의 독특한 말도 그 노트에 자주 나옵니다. 때로는 신변잡기, 자신이 본 여러 전람회의 내용, 연애 이야기, 전쟁의 고통스러운 기억, 화가로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딜레마 등 야마다의 힘겨운 도전을 방불케 하는 내용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단, 그의 글씨를 읽어내는 일은 참으로 힘듭니다.(카탈로그에는 노트의 일부 사진이 해설문과 함께 게재되어 있습니다.)

Work D 1970-1979

1970년대에 야마다 마사아키의 작품은 회색에 가까운 미묘한 색조를 사용하여 그리드(격자) 모양으로 화면을 나눈 후 각각 다른 색으로 칠하는 스타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필촉이 거의 사라지고, 1960년대까지 화면에 있었던 하층 물감의 두께가 만드는 요철도 볼 수 없게 되어, 색채의 면이 구름처럼 둥실 떠다니는, 마치 라이트 박스와 같은 감각을 불러일으킵니다. 그 태연스러움과 경질감은 어딘가 모르게 1970년대의 시대 분위기를 느끼게 합니다.

| | | | | |
|--|--|--|---|--|
| Work D.34 <p>1970 유채·캔버스 97×97cm</p> | Work D.112 <p>1972 유채·캔버스 130×43cm</p> | Work D.p 206 <p>1974 콘테·종이 79×49cm</p> | Work D.230 <p>1976 유채·캔버스 162×130cm</p> | Work D.294 <p>1978 유채·캔버스 80.5×60.8cm</p> |
| Work D.44 <p>1970 유채·캔버스 91×80.3cm</p> | Work D.114 <p>1972 유채·캔버스 130×43cm</p> | Work D.p 226 <p>1974 색연필·종이 72×90cm</p> | Work D.231 <p>1976 유채·캔버스 116.8×91cm</p> | Work D.296 <p>1978 유채·캔버스 80.5×61cm</p> |
| Work D.87 <p>1972 유채·캔버스 227.3×162cm 국립 국제미술관</p> | Work D.116 <p>1972 유채·캔버스 130×43cm</p> | Work D.184 <p>1975 유채·캔버스 80.3×116.8cm</p> | Work D.234 <p>1976 유채·캔버스 89.5×130.2cm</p> | Work D.297 <p>1978 유채·캔버스 194×194cm 다카마쓰시 미술관</p> |
| Work D.92 <p>1972 유채·캔버스 227.2×162cm 나고야시 미술관</p> | Work D.119 <p>1972 유채·캔버스 130×43cm</p> | Work D.186 <p>1975 유채·캔버스 80.3×116.8cm</p> | Work D.253 <p>1976-77 유채·캔버스 72.8×53cm</p> | Work D.301 <p>1978 유채·캔버스 116.7×80.3cm</p> |
| Work D.100 <p>1972 유채·캔버스 227.3×162cm 다카마쓰시 미술관</p> | Work D.142 <p>1973 유채·캔버스 60×162cm</p> | Work D.210 <p>1975 유채·캔버스 194×194cm</p> | Work D.259 <p>1977 유채·캔버스 130.3×89.5cm</p> | Work D.315 <p>1979 유채·캔버스 72.8×53cm</p> |
| Work D.109 <p>1972 유채·캔버스 130×43cm</p> | Work D.144 <p>1973 유채·캔버스 60×194cm</p> | Work D.p 248 <p>1975 색연필·종이 77×50cm</p> | Work D.262 <p>1977 유채·캔버스 182×182cm</p> | Work D.321 <p>1979 유채·캔버스 194×130cm 후쿠시마 현립 미술관</p> |
| Work D.111 <p>1972 유채·캔버스 130×43cm</p> | Work D.163 <p>1974 유채·캔버스 194×130cm</p> | Work D.p 263 <p>1975 콘테·종이 74.5×105cm 지바시 미술관</p> | Work D.264 <p>1977-78 유채·캔버스 194×194cm</p> | Work D.325 <p>1979 유채·캔버스 194×130cm 후쿠시마 현립 미술관</p> |
| | Work D.170 <p>1974 유채·캔버스 194×130cm 후쿠시 미술관</p> | Work D.p 264 <p>1975 콘테·종이 74.5×105cm 후쿠시 미술관</p> | Work D.277 <p>1977-78 유채·캔버스 162×112cm 후쿠시 미술관</p> | |

Work E, Work F 1980-1995

1978년 야마다 마사아키는 도쿄 긴자의 야스 화랑에서 개최된 대규모 개인전 을 통해 일약 명성을 떨쳤습니다. 그림을 그리기 시작해서 40년이 지난 후의 일입니다. 그 무렵부터 그의 스타일은 다시 크게 바뀝니다. 색면은 붓의 스트로크를 강조한, 움직임울 느끼게 하는 것으로 달라지고, 상당히 큰 캔버스를 사용하게 됩니다. 철저하게 억제해 오던 그때까지의 화면과 비교하면 자유롭고 개방적인 표현으로 방향을 바꾸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선이나 색 얼룩을 인간이나 수목의 모습으로 보이게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모든 작품에서 십자형이나 직사각형, 수직선이나 수평선이 골격처럼 그림 전체를 장악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 | | | |
|--|--|---|---|--|
| Work E.p 105 <p>1980 콘테·종이 72×90cm 지바시 미술관</p> | Work E.p 447 <p>1984 수채·종이 79×109cm</p> | Work E.280 <p>1987 유채·캔버스 259×388cm 국립 국제미술관</p> | Work F.20 <p>1990 유채·캔버스 259×388cm 지바시 미술관</p> | Work F.131 <p>1992 유채·캔버스 182×259cm</p> |
| Work E.151 <p>1983 유채·캔버스 182×456cm 다카마쓰시 미술관</p> | Work E.p 526 <p>1985 수채·종이 72×90cm</p> | Work E.p 666 <p>1987 유채, 콘테·종이 78.5×107cm</p> | Work F.p 3 <p>1990 콘테·종이 78.5×107cm 색채미술관</p> | Work F.220 <p>1994 유채·캔버스 227×364cm</p> |
| Work E.p 324 <p>1983 유채, 콘테·종이 70×100cm 지바시 미술관</p> | Work E.250 <p>1986 유채·캔버스 도쿄 국립 근대미술관</p> | Work E.p 803 <p>1988 수채·종이 72×90cm 가사하라 화랑</p> | Work F.116 <p>1992 유채·캔버스 182×259cm</p> | |

| | | | | |
|---|---|---|---|---|
| Work E.300 <p>1987 유채·종이 100×100cm 지바시 미술관</p> | Work E.301 <p>1987 유채·종이 100×100cm 지바시 미술관</p> | Work E.302 <p>1987 유채·종이 100×100cm 지바시 미술관</p> | Work E.303 <p>1987 유채·종이 100×100cm 지바시 미술관</p> | Work E.304 <p>1987 유채·종이 100×100cm 지바시 미술관</p> |
| Work E.305 <p>1987 유채·종이 100×100cm 지바시 미술관</p> | Work E.306 <p>1987 유채·종이 100×100cm 지바시 미술관</p> | Work E.307 <p>1987 유채·종이 100×100cm 지바시 미술관</p> | Work E.308 <p>1987 유채·종이 100×100cm 지바시 미술관</p> | Work E.309 <p>1987 유채·종이 100×100cm 지바시 미술관</p> |
| Work E.310 <p>1987 유채·종이 100×100cm 지바시 미술관</p> | Work E.311 <p>1987 유채·종이 100×100cm 지바시 미술관</p> | Work E.312 <p>1987 유채·종이 100×100cm 지바시 미술관</p> | Work E.313 <p>1987 유채·종이 100×100cm 지바시 미술관</p> | Work E.314 <p>1987 유채·종이 100×100cm 지바시 미술관</p> |
| Work E.315 <p>1987 유채·종이 100×100cm 지바시 미술관</p> | Work E.316 <p>1987 유채·종이 100×100cm 지바시 미술관</p> | Work E.317 <p>1987 유채·종이 100×100cm 지바시 미술관</p> | Work E.318 <p>1987 유채·종이 100×100cm 지바시 미술관</p> | Work E.319 <p>1987 유채·종이 100×100cm 지바시 미술관</p> |
| Work E.320 <p>1987 유채·종이 100×100cm 지바시 미술관</p> | Work E.321 <p>1987 유채·종이 100×100cm 지바시 미술관</p> | Work E.322 <p>1987 유채·종이 100×100cm 지바시 미술관</p> | Work E.323 <p>1987 유채·종이 100×100cm 지바시 미술관</p> | Work E.324 <p>1987 유채·종이 100×100cm 지바시 미술관</p> |

| | |
|------------------|--|
| 작가 약력 | |
| 1929년 | 야마다 마사아키(山田正亮, 본명 正昭) 도쿄에서 출생. 남자 4명 여자 1명의 형제 중 막내. 큰형 과 둘째형은 유전 염색물의 화가였다. |
| 1943년 | 도쿄부 고쿠분지초 육군병기행정본부 제도수양성소에 입소. 이듬해 동 양성소 교무실 조교가 되어 육군병기행정본부 위탁생으로 도쿄도 고가네이초의 도쿄 도립 기계공업학교 제2분과 기계과에 입학. |
| 1945년 | 도쿄의 자택이 공습으로 소실. 피난처에서도 공습을 당함. 전쟁 종료. 육군병기행정본부 퇴직. |
| 1949년 | “일본 앙테팡당진”, “자유미술전”에 출품.(이후 계속해서 출품.) |
| 1950년대 전반 | 결핵에 걸려 입원과 퇴원을 반복. |
| 1958년 | 교분칸 화랑에서 첫 개인전 개최. 그 이후 요세이도 화랑, 난텐시 화랑 등에서 개인전. |
| 1978년 | 야스 화랑에서 개인전. |
| 2005년 | 후쿠시 미술관에서 개인전. |
| 2005년 | 문화청 장관 표창을 받다. |
| 2010년 | 담관암으로 자택에서 사망. |

| |
|---|
| 전시회 카탈로그: 336페이지, 작품과 제작노트 도판 다수 수록, 에세이 5편. 오미조 히로시의 디자인, 일본어/영어 2언어. 2700엔+세금. 미술출판사 간행. 일반 서점이나 인터넷 서점에서도 구매할 수 있습니다. |
|---|

| |
|--|
| endless 야마다 마사아키의 회화 |
| 회장 구성: 니시자와 테쓰오 / 회장 디스플레이: 도쿄 스타테오 |
| 회장 그래픽: 오미조 히로시(Glanz) / 조명: Light Meister Co.,Ltd |

| |
|------------------------------|
| 주최: 교토 국립 근대미술관, 도쿄 국립 근대미술관 |
| 협력: 일반사단법인 야마다 마사아키의 모임 |

2016년도 문화청 “지역의 핵심이 되는 미술관·역사박물관 지원 사업”

회장 안내

endless

야마다 마사아키

2017년 3월 1일[수]~4월 9일[일]

교토 국립 근대미술관

화가 야마다 마사아키 월드에 잘 오셨습니다!

회화의 향연을 꼭 즐겨 주십시오.

야마다 마사아키*(1929-2010)는 “회화와 계약”**한 남자입니다. 그 배경에 있었던 것은 소년기의 가혹한 전쟁 체험. 죄도 없는 많은 사람들의 부당한 죽음을 목격한 야마다는 확실한 가치를 찾는 과정에서 자신도 모르게 그림 그리기에 헌신하게 되었고, 그 후 반세기 이상 계속 그림을 그려 왔습니다. 그에게 하나 하나의 작품 제작은 항상 뼈를 깎는 진지한 승부. 언뜻 보면 다 똑같은 스트라이프로 보이지만 각각의 작품은 전부 다른 표정과 개성을 갖고 있으며, 여러 번 겹쳐진 그림물감이 매우 풍부한 시각 체험으로 이끌어 줍니다. 5,000점을 넘는 야마다의 회화*** 중에서 엄선한 219점을 통해 오늘날까지 시들지 않은 회화의 힘을, 그리고 그린다는 행위의 심오함을 실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 현기증에 주의해 주십시오.

| |
|--|
| *야마다 마사아키(山田正亮)의 이름(正亮)은 ‘마사아키’이지만 자주 ‘세이료’라고도 불립니다. |
| **야마다 마사아키가 남긴 제작노트에 있는 말. |
| ***야마다 마사아키는 모든 작품에 번호를 붙여 대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서울 정도로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

Color 1997-2001

전람회 입구 좌우의 벽에 있는 것은 야마다 마사아키가 마지막 활동시기에 그린 시리즈 “Color” 입니다. 마지막이 처음? 일부러 전람회의 첫머리에 “Color” 를 전시하는 것은 그의 그림 근간에 언제나 색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색채란 화가에 게 있어서 최초의 기억과 같은 것” 이라고 야마다는 말했습니다.

| | | | | |
|--|---|---|---|--|
| Color no.20 1997- 유채·캔버스 65.2×53cm | Color no.39 1997- 유채·캔버스 65.2×53cm | Color no.56 1998- 유채·캔버스 65.2×53cm | Color no.93 1999- 유채·캔버스 65.2×53cm | Color no.132 2000-01 유채·캔버스 65×53cm |
| Color no.34 1997- 유채·캔버스 65.2×53cm | Color no.51 1998- 유채·캔버스 65.2×53cm | Color no.66 1999- 유채·캔버스 65.2×53cm | Color no.98 1999- 유채·캔버스 65×53cm | |
| Still Life [정물화] 1948-1955 | | | | |
| 초기 작품은 정물화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들 작품은 실제의 스케치가 아닌 “기억으로 그려진” 것입니다. 가장 앞선 시기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설탕 항아리의 형태는 어딘가 인간을 상기시킵니다. 모티브는 점차 주변 공간과 융합되기 시작하고, 병 입구의 원형이 점점 정면을 향하면서, 과일의 둥그란 모양과 서로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 | | | |

| | | | | |
|---|---|--|--|---|
| Still Life no.7 1948 유채·판지 24×32.5cm | Still Life P.no O10 1948 유채, 콘테·색종이 24×32cm | Still Life no.15 1950 유채·캔버스 45.6×38cm 후추시 미술관 | Still Life no.35 1951 유채·캔버스 45.6×53cm 국립 국제미술관 | Still Life no.64 1953 유채·캔버스 41×53cm |
| Landscape no.8 1948 유채·캔버스 60.5×72.8cm 후추시 미술관 | Still Life P.no 4 1948 유채, 콘테, 연필·종이 30×41cm | Still Life P.no O9 1950 연필, 콘테·종이 35.5×46cm | Landscape no.44 1951-52 유채·판자 53.5×41.5cm | Still Life no.71 1953 유채·캔버스 80.3×65.2cm |
| Still Life no.10 1948 유채·판지 28×40.5cm | Still Life A.no 11 1949 유채·캔버스 53×45.5cm 후추시 미술관 | Still Life no.24 1951 유채·캔버스 45.6×53cm 미야시타 아키라 | Still Life no.51 1952 유채·캔버스 53×72.8cm 아시아 시립 미술박물관 | Still Life no.77 1953 유채·캔버스 65.2×53cm |
| Still Life A.no 6 1948 유채·판지 36.5×26.5cm | Still Life P.no O10 1949 유채, 콘테, 색연필·종이 40×32cm | Still Life no.25 1951 유채·캔버스 50×40.2cm | Still Life no.53 1952 유채·캔버스 100×80.3cm 우쓰노미야 미술관 | Still Life no.83 1954-55 유채·판자 38×45.5cm 후추시 미술관 |
| Still Life P.no O4 1948 유채, 콘테·색종이 23×32cm | Still Life no.6 1950 유채·캔버스 53×65.2cm | Still Life no.26 1951 유채·캔버스 53×45.6cm 후추시 미술관 | Still Life no.58 1952 유채·캔버스 65.3×53cm 후추시 미술관 | Still Life P.no 95 1954-55 유채·캔버스 116.8×91cm 후추시 미술관 |
| Still Life P.no O9 1948 콘테·종이 23.5×32cm 색채미술관 | | Still Life no.34 1951 유채·캔버스 38×45.6cm | | Still Life P.no 71 1954-55 유채, 콘테·종이 38×45.5cm 지바시 미술관 |

Chronology [작품의 변천] 1948-2001

야마다 마사아키를 처음으로 체험하시는 귀하를 위해 반세기 이상에 걸친 그의 작품세계를 한 곳에 요약해 보여 드립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여기서는 실제 작품을 사용했습니다. 게다가 소품이기는 하지만 시간을 들여 확실하게 그려진 우량품만을 선정했습니다. 말은 야마다의 제작노트 등에서 인용. 이것으로 완벽하게 예습 끝.

| | | | | |
|---|---|---|---|---|
| Still Life no.45 1951-52 유채·캔버스 26×16cm 미야시타 아키라 | Work B.O50 1958 유채·캔버스 39.5×35cm | Work C.O41 1973 유채·캔버스 33.3×24.2cm | Work D.136 1973 유채·캔버스 25×91cm | Work E.289 1987 유채·캔버스 41×65cm |
| Work B.O8 1956 유채·캔버스 27.3×41cm | Work B.O77 1959 유채·캔버스 24×33.3cm | Work C.O73 1967 유채·캔버스 27.5×45.6cm 노마딕 공방·우치다 요시타카 | Work D.O74 1990 유채·캔버스 24.2×41cm | Work F.29 1990 유채·캔버스 33.3×46cm 미야시타 아키라 |
| Work B.O38 1957 유채·캔버스 33.3×24.5cm | Work C.O6 1960 유채·캔버스 33.3×24cm 쓰쿠바 대학·이시이 쾰렉션 | Work C.O O26 1968 유채·캔버스 27.3×19cm | Work D.O82 1977 유채·캔버스 45.6×53cm | Color no.106 1999- 유채·캔버스 65.2×53cm |

Work B 1956-1959

야마다 마사아키는 1956년부터 1995년까지의 작품에 “Work” 라는 시리즈 이름을 부여하고, 그 모든 작품에 기계적으로 번호를 붙였습니다. “Work B” 는 1956년부터 1959년까지의 작품. 그 후 10년을 단위로 “Work C” 가 1960년부터 1969년까지, “Work D” 가 그 이후의 10년 등과 같이 되도록 하여 이 시리즈는 “Work F” 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정물화의 모티브가 완전히 해체된 곳에서 “Work B” 는 시작되었습니다. 소용돌이와 같은 형태의 아라베스크 무늬 속에서 점점 직사각형이 떠올라 마침내 확실한 직사각형만 있는 화면이 생겨납니다.

| | | | | |
|--|--|--|--|--|
| Work B.112 1956 유채·캔버스 116.8×91cm 후추시 미술관 | Work B.134 1956 유채·캔버스 80.3×100cm 협력: 갤러리 요네즈 | Work B.149 1957-58 유채·캔버스 73×61cm | Work B.183 1958 유채·캔버스 97×130.3cm 협력: 갤러리 요네즈 | Work B.220 1959 유채·캔버스 65.3×100cm 가사하라 화랑 |
| Work B.114 1956 유채·캔버스 91×73cm | Work B.136 1956-57 유채·캔버스 100×80.2cm | Work B.154 1957-58 유채·캔버스 91×72.8cm 노마딕 공방·우치다 요시타카 | Work B.192 1959 유채·캔버스 130×194cm | Work B.227 1959 유채·캔버스 53×80cm |
| Work B.115 1956 유채·캔버스 72.8×60.7cm | Work B.139 1956-57 유채·캔버스 91×65.3cm 협력: 갤러리 요네즈 | Work B.163 1958 유채·캔버스 80.3×100cm 후추시 미술관 | Work B.205 1959 유채·캔버스 72.9×117cm 후추시 미술관 | Work B.228 1959 유채·캔버스 65×100cm |
| Work B.118 1956 유채·캔버스 91×72.8cm | Work B.141 1957 유채·캔버스 100×80.3cm 협력: 갤러리 요네즈 | Work B.169 1958 유채·캔버스 97×130.4cm 지바시 미술관 | Work B.214 1959 유채·캔버스 72.8×117cm | |
| Work B.125 1956 유채·캔버스 116.8×91cm 우쓰노미야 미술관 | Work B.145 1957 유채·캔버스 65.3×80.2cm 협력: 갤러리 요네즈 | Work B.182 1958 유채·캔버스 91×116.8cm 아이치현 미술관 | Work B.219 1959 유채·캔버스 50×72.8cm | |

Work C 1960-1969

야마다 마사아키는 스트라이프의 화가로 알려져 왔습니다. 야마다 이전에도 파울 클레를 비롯해 스트라이프를 회화작품으로 묘사한 화가는 몇 명 있습니다. 단, 이렇게 철저하게 신들린 사람처럼 몇 년이나 계속한 사람은 야마다 외에는 없을 것입니다. 도대체 스트라이프이란 무엇인가. 하나만 말씀 드리자면 야마다의 스트라이프는 하나의 평면 위에 색 선이 나란히 있을 뿐 아니라 겹쳐서 칠해진 물감의 반복된 층, 이른바 깊이 방향으로도 스트라이프를 이루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번 전시회를 위한 조사의 일환으로 촬영된 스트라이프 작품의 물감층 단면 현미경 사진이 회장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볼 수 있는 물감층의 증층구조가 복잡하고 정묘한 시각체험으로 이끌어 줍니다. 디지털 디스플레이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1965년 경에는 스트라이프가 일단락되고 침잠하듯 무채색 화면으로 바뀌어 갑니다. 스트라이프의 색채 범람 후에 야마다 마사아키가 보여 주는 고요한 일면입니다. 섬세하게 그려진 화면에는 미묘한 색감과 사람의 체온과 같은 뉘앙스가 있습니다.

| | | | | |
|--|--|---|---|---|
| Work C.12 1960 유채·캔버스 65×50cm 색채미술관 | Work C.33 1960 유채·캔버스 145.8×97cm 아이치현 미술관 | Work C.40 1960 유채·캔버스 162×97cm 지바시 미술관 | Work C.60 1960 유채·캔버스 65×50cm | Work C.62 1960 유채·캔버스 162×97cm 아오모리 현립 미술관 |
| Work C.27 1960 유채·캔버스 72.8×53cm | Work C.34 1960 유채·캔버스 117×56cm | Work C.57 1960 유채·캔버스 145.7×89.5cm 오사카 신미술관 건설 준비실 | Work C.61 1960 유채·캔버스 130×80.3cm 협력: 갤러리 요네즈 | Work C.70 1960 유채·판자 91×91cm |

| | | | | |
|---|--|--|---|---|
| Work C.73 1960 유채·캔버스 180×68cm 도쿄 국립 근대미술관 | Work C.96 1961 유채·캔버스 162×97cm 국립 국제미술관 | Work C.138 1963 유채·캔버스 162×130cm 니가타시 미술관 | Work C.216 1964-65 유채·캔버스 162×97cm | Work C.329 1967 유채·캔버스 162×130cm 협력: 갤러리 요네즈 |
|---|--|--|---|---|

| | | | | |
|--|--|--|---|---|
| Work C.75 1960 유채·캔버스 100×65.2cm 아시아 시립 미술박물관 | Work C.100 1961 유채·캔버스 145.6×97cm 협력: 갤러리 요네즈 | Work C.142 1963 유채·캔버스 194×97cm | Work C.217 1964-65 유채·캔버스 100×65cm | Work C.339 1967 유채·캔버스 112×145.7cm |
|--|--|--|---|---|

| | | | | |
|---|---|--|--|--|
| Work C.77 1960 유채·캔버스 180×68cm 도쿄 국립 근대미술관 | Work C.p 91 1961 유채, 왁스·종이 25×17cm | Work C.147 1963 유채·캔버스 130.3×97cm | Work C.218 1964-65 유채·캔버스 194×130cm | Work C.342 1967 유채·캔버스 162×130cm 미야기현 미술관 |
|---|---|--|--|--|

| | | | | |
|--------------------------------------|--|--|--|---|
| Work C.78 1960 유채·캔버스 80×53cm | Work C.p 101 1961 유채·종이 79.5×54cm | Work C.158 1963 유채·캔버스 100×73.2cm | Work C.223 1965 유채·캔버스 116.8×80.3cm | Work C.343 1967 유채·캔버스 162×112cm 오사카 신미술관 건설 준비실 |
|--------------------------------------|--|--|--|---|

| | | | | |
|--------------------------------------|---|--|---------------------------------------|--|
| Work C.O1 1960 유채·캔버스 41×53cm | Work C.92 1961-62 유채·캔버스 116.8×91cm 요코하마 미술관 | Work C.158 1963 유채, 왁스·종이 18×17cm | Work C.241 1965 유채·캔버스 91×65cm | Work C.p 398 1967 유채, 콘테·종이, 엠보싱 유채·캔버스 79×47cm 색채미술관 |
|--------------------------------------|---|--|---------------------------------------|--|

| | | | | |
|--------------------------------------|--|---|---------------------------------------|--|
| Work C.O8 1960 유채·캔버스 46×38cm | Work C.93 1961-62 유채·캔버스 145.7×97cm 다카마쓰시 미술관 | Work C.p 184 1963 색연필·인쇄용지 30.5×22cm | Work C.241 1965 유채·캔버스 91×65cm | Work C.p 398 1967 유채, 콘테·종이, 엠보싱 유채·캔버스 79×47cm 색채미술관 |
|--------------------------------------|--|---|---------------------------------------|--|

| | | | | |
|--|--|---|---|---|
| Work C.p 2 1960 유채, 콘테·종이 52×39cm 후추시 미술관 | Work C.99 1961-62 유채·캔버스 130.3×80.3cm 가사하라 화랑 | Work C.154 1963-64 유채·캔버스 162×97cm | Work C.258 1965 유채·캔버스 117×117cm 지바시 미술관 | Work C.355 1968 유채·캔버스 162×112cm |
|--|--|---|---|---|

| | | | | |
|---|---|--|--|--|
| Work C.p 11 1960 유채·종이 54.5×39cm 후추시 미술관 | Work C.102 1960 유채·캔버스 162×112cm 교토 국립 근대미술관 | Work C.163 1963-64 유채·캔버스 91×65cm 가사하라 화랑 | Work C.268 1965-66 유채·캔버스 117×117cm 지바시 미술관 | Work C.358 1968 유채·캔버스 130.3×89.5cm |
|---|---|--|--|--|

| | | | | |
|---------------------------------------|--|---|---|--|
| Work C.p 16 1960 유채·종이 67×48cm | Work C.105 1961-62 유채·캔버스 162×112cm 후추시 미술관 | Work C.171 1964 유채·캔버스 72.8×33.3cm 색채미술관 | Work C.289 1966 유채·캔버스 162×130cm 사이타마 현립 근대미술관 | Work C.368 1968 유채·캔버스 130.3×89.5cm |
|---------------------------------------|--|---|---|--|

| | | | | |
|---|--|---|---|--|
| Work C.p 19 1960 유채, 콘테·종이 54.5×39cm | Work C.108 1962 유채·캔버스 162×112cm 도야마 현립 근대미술관 | Work C.180 1964 유채·캔버스 162×130cm | Work C.154 1963-64 유채·인쇄용지 37×17cm | Work C.368 1968 유채·캔버스 130.3×89.5cm |
|---|--|---|---|--|

| | | | | |
|---|---------------------------------------|---|---|---|
| Work C.p 25 1960 유채·종이 41×31.5cm | Work C.109 1962 유채·캔버스 91×65cm | Work C.171 1964 유채·캔버스 72.8×33.3cm 색채미술관 | Work C.p 191 1963-64 유채·인쇄용지 37×17cm | Work C.400 1969 유채·캔버스 162×112cm 도쿄도 현대미술관 |
|---|---------------------------------------|---|---|---|

| | | | | |
|---|--|---|---|--|
| Work C.p 43 1960 유채·종이 36.5×25cm | Work C.111 1962 유채·캔버스 145.8×97cm | Work C.180 1964 유채·캔버스 162×130cm | Work C.154 1963-64 유채·인쇄용지 37×17cm | Work C.p 286 1966 유채·캔버스 116.8×91cm |
|---|--|---|---|--|

| | | | | |
|---|---|--|---|---|
| Work C.p 59 1960 유채·종이 35.5×25cm | Work C.113 1962 유채·캔버스 80.3×61cm | Work C.191 1964 유채·캔버스 117×80cm 가사하라 화랑 | Work C.171 1964 유채·캔버스 72.8×33.3cm 색채미술관 | Work C.201 1964 유채·캔버스 80.5×65cm |
|---|---|--|---|---|

| | | | | |
|--|--|---|---|--|
| Work C.85 1961 유채·캔버스 91×65cm 색채미술관 | Work C.114 1962 유채·캔버스 162×115cm 미야기현 미술관 | Work C.205 1964 유채·캔버스 72.8×41cm | Work C.180 1964 유채·캔버스 162×130cm | Work C.191 1964 유채·캔버스 117×80cm 가사하라 화랑 |
|--|--|---|---|--|

| | | | | |
|--|---|--|---|--|
| Work C.86 1961 유채·캔버스 162×115cm 도쿄도 현대미술관 | Work C.120 1962 유채·캔버스 162×130cm | Work C.208 1964 유채·캔버스 130.3×80cm | Work C.205 1964 유채·캔버스 72.8×41cm | Work C.208 1964 유채·캔버스 130.3×80cm |
|--|---|--|---|--|

| | | | | |
|---|--|--|---|--|
| Work C.88 1961 유채·캔버스 162.2×97cm 가사하라 화랑 | Work C.122 1962 유채·캔버스 116.8×73cm | Work C.210 1964 유채·캔버스 117×72.8cm | Work C.205 1966 콘테·종이, 엠보싱 지바시 미술관 | Work C.210 1964 유채·캔버스 117×72.8cm |
|---|--|--|---|--|

| | | | | |
|--|--|---------------------------------------|---|--|
| Work C.89 1961 유채·캔버스 117×91cm 요코하마 미술관 | Work C.p 140 1962 유채·종이 54.2×32.5cm | Work C.212 1964 유채·캔버스 91×65cm | Work C.208 1966 콘테·종이, 엠보싱 지바시 미술관 | Work C.210 1964 유채·캔버스 117×72.8cm |
|--|--|---------------------------------------|---|--|

| | | | | |
|--|---|--|---|--|
| Work C.94 1961 유채·캔버스 162×112cm 우쓰노미야 미술관 | Work C.131 1963 유채·캔버스 72.8×61cm | Work C.211 1964-65 유채·캔버스 162×130cm 도쿄 오페라시티 아트 갤러리 | White Object 15 1966 탄산마그네슘 분말, 아크릴 바스 73×52×8.2cm | White Object 17 1966 스티로폼, 아크릴 바스 73×52×6.4cm |
|--|---|--|---|--|